

107

새로운 조경수

자위나무속

(*Jacaranda* 紫葳木)



김사일

(전 임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)

● 종류와 생육특성

능소화과(*Bignoniaceae*) 자위나무속(*Jacaranda*)에는 전 세계에 50여 수종이 생육하고 있고, 이들 수종중에는 소교목과 교목, 상록수 또는 낙엽수가 있으며, 브라질(Brazil), 아르헨티나(Argentina), 파라과이(Paraguay), 미국 남부(South America), 이집트(Egypt)등의 열대 및 아열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. 잎은 양치식물(羊齒植物)처럼 2회 우상복엽이고 꽃은 4~5월에 길이 5cm정도되는 나팔모양의 꽃이 피며, 수종에 따라 백색, 자주색, 담자색 등 여러 가지 빛깔의 꽃이 핀다. 수형은 넓은 둥근 원형이며, 수형을 다듬기 위하여 전지를 하면 가지를 잘라낸 자리에서 꽃꽂이 선 새순이 발생

하여 오히려 수형을 망치기때문에 전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뿌리가 천근성이어서 이식이 쉽지 않다. 목재는 브라질자단(紫檀:Brazil Rosewood)이라고 하는 고급무늬목을 생산한다. 생육입지는 열대 및 아열대지방으로 햇빛이 잘 들고 비료분이 풍부하며 배수가 잘 되는 적습한 토양의 고원(高原) 또는 평원(平原)지대에서 잘 자란다.

〈표 1〉 자위나무의 종류

국명	학명	입본명	성명
담자색 자위나무	<i>Jacaranda mimosaeifolia(acutifolia)</i> HUMB. et BONPL.	-	Mimosa-leaved Ebony, Rose Wood
자주색 자위나무	<i>Jacaranda obatusifolia(Filicifolia)</i> HUMB. et BONPL.	-	Green Ebony

〈표 2〉 수종별 생육특성

수종명	기타특성	수피특성	분포지역	생육입지
담자색 자위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낙엽활엽수교목으로 수고 15m, 가지 12m이상 뻗음 • 수형은 넓고 둥근 구형임 • 밝은 녹색의 소엽이 12쌍 이상 착생하는 2회 우상복엽으로 길이가 40cm나 됨 • 잎은 겨울에서 이른 봄사이에 떨어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꽃은 4~5월에 길이가 5cm나 되는 나팔모양의 담자색 꽃이 필 • 화서의 길이는 20~30cm나 되며, 한 개의 화서에 많은 꽃이 달림 • 화서는 꽃꽂이 서고 원추화서임 • 꽃이 지고 나면 가죽질의 납작한 꼬투리가 달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브라질, 파라과이, 아르헨티나, 이집트, 미국 남부지역에 분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열대 및 아열대지방의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비료분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적습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
자주색 자위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고 18m까지 자라고, 수형이 아름답다. • 잎은 2회 우상복엽으로 길이가 40cm나 됨 • 한 개의 복엽에 길이가 2cm정도 되는 소엽이 무수히 달림 • 잎의 표면은 윤이 나는 녹색이고, 이면은 회록색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꽃이 피는 시기와 크기는 담자색 자위나무와 비슷하나, 꽃색이 푸른빛이 도는 자주색인 것이 다른 점임 • 꽃은 보통 잎이 없는 묵은 가지에서 필 • 지방에 흰털이 밀생하고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베네수엘라, 가이아나에 분포 	



담자색 자위나무의 개화 전경(이집트, 카이로) 담자색 자위나무의 꽃, 잎, 수피의 모양 및 색상



3 땀샘 자위나무의 화서와 복엽



4 땀샘 자위나무 집단 식재지의 개화 전경 (Botanica's Pocket 'Trees & Shrubs'에서 옮김)

●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

열대 및 아열대지역에서 조경용 화목(花木)으로 널리 식재되고 있으며, 특히 땀샘 자위나무는 그중에서도 으뜸으로 취급되고 있다. 4~5월에 땀샘 꽃이 나무를 온통 뒤덮고 있는 모습도 장관이지만 특히 집단으로 식재된 땀샘 자위나무 숲속의 산책은 마치 자수정(紫水晶)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황홀경에 빠지게 한다. 열대수종이지만 파라과이(남위 15°~25°), 아르헨티나(남위 25°~45°), 이집트(북위 15°~30°) 등의 고원지대에서 잘 자란다고 하니 우리나라 남부 도서지역 및 제주도(북위 32°~36°)에서도 노지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, 내륙지역에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유목시에 분에 심어 관엽식물로 실내에 두고 감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.

● 번식 및 양묘방법

번식은 종자파종과 삽목으로 가능하지만 삽목의 활착이 저조하기 때문에 주로 종자로 번식한다. 파종에 의한 실생모양성은 열매(꼬투리)가 익어 갈색으로 변하는 시기인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열매를 채취하여 2~3일간 음건하여 꼬투리가 벌어지면 종자를 털어내어 가을에 바로 파종하거나, 습한 모래와 섞어서 저온저장하여 두었다 봄에 꺼내어 파종한다. 어린묘목은 추위에 약하므로 상해 및 동해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방한시설을 설치하여 주어야 한다. ☔